

낙인(烙印)

KBS 순천

정길훈 기자



일본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한센병 수용시설 '나카지마 아이세엔'

그날 밤은 달이 뜨지 않아 칙칙처럼 어두웠다. 육지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 이어서 사위도 고요했다. 어둡고 고요한 밤,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피곤했기에 금세 꿀아떨어질 만했지만 필자는 쉽게 잠 들지 못했다. 낯선 이국, 과거 한센병을 앓 았던 분들이 사는 시설에서 보내는 하룻 밤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진 데다 다 다미방 잠자리도 생경스럽게 다가왔기 때 문이다.

2009년 3월 어느 날, 국내 첫 한센병 치료시설(여수 애양원) 개원 백 년을 기념 해 보도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필자 와 촬영기자는 일본의 한센병 치료와 인

권 개선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나카지마 아이세엔(愛生園)'을 찾았다. 첫날 일정을 소화한 우리는 밤에 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기거하는 한국 출신 김 씨 할머니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김 할머니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한센병 이 발병해 16살 때부터 아이세엔에 수용 된 분이였다.

당시 숙소 선택은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과거 몇 차례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면서 해외 취재를 나갈 때면 늘 가성비 높은 현지 호텔을 이용했지만 이번엔 호텔에서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센병을 앓았던 분들의 필설로 전하지 못할 애절한 사연을 인터뷰에 담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같은 공간에서 잔다면 일본에서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이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현지 코디에게 우린 아이세엔에서 하룻밤을 묵을 테니 날 밝은 뒤 다시 오라는 얘기를 전했다.

필자와 촬영기자를 난처하게 만든 건 그날 밤 식사였다. 우린 애초 아이세엔의 편의점에서 라면과 빵을 사서 한 끼니를 때우려고 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첫날 저녁 밥을 대충 해결하고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한 뒤 오카야마에서 근사한 저녁식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우리가 방에 짐을 풀고 잠깐 쉬는 사이 집주인 김 할머니가 손수 음식을 내왔다. 일본 맥주와 안줏거리였다. 마름모꼴로 먹기 좋게 자른 김치전 한 접시가 놓였다. 김 할머니는 피로를 푸는 데 술이 좋고, 술안주로 한국에서 즐겨 먹었던 김치전을 만들어 왔으니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아! 그때 당황하던 촬영기자의 눈빛을 평생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할머니에게 건네면서도 쉽사리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필자의 눈치를 봤다. 할머니의 호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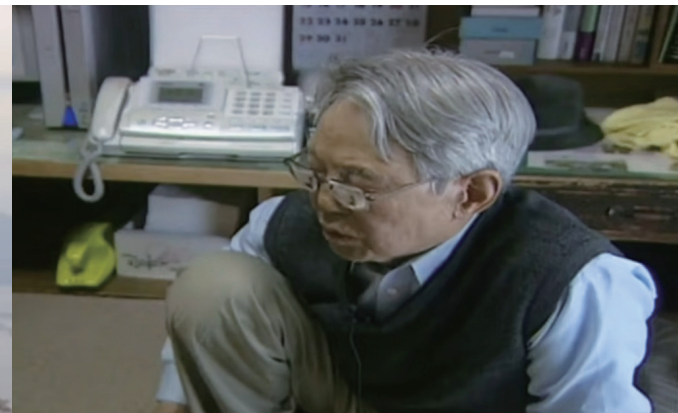


김 씨 할머니

감사하고 배도 많이 고프지만 꼭 이걸 먹어야 하느냐는, 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눈빛이었다. 주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한센병을 앓았던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인데 먹기가 꺼림칙하지 않냐는 거였다.

필자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맞은 편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기에 김치전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고 김치전을 게걸스럽게 먹었다. 찬찬히 음미할 필요가 없었다. 얼른 먹어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촬영기자도 김치전을 입에 넣었다. 김치전이 맛있어서 먹는다가보다는 술만 마실 수 없어서 안주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게 얼굴에서 읽혔다.

고국에서 찾아온 손자뻘 기자들을 나



故 김태구 할아버지

름의 방식으로 환대한 할머니는 다음 날 취재 때 한 편의 소설 같은 당신의 인생사를 풀어놓았다. 꿈 많은 16살 소녀 시절 한센병에 걸려 입소한 사연, 조선사람이어서 또 한센병을 앓고 있어서 이중으로 차별을 당했던 사연, 서러울 때면 눈물바람으로 바닷가 언덕에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사연 등을 털어놓았다.

김 할머니의 사연에 대해 취재를 마치고 또 다른 분을 취재할 때도 난처한 상황은 이어졌다. 아이세엔에 수용된 故 김태구 씨는 깨어 있는 지식인이었다. 경남 합천 출신의 김 할아버지는 해방 후 오사카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센병에 걸려 아이세엔에 강제 격리됐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한센병에 걸린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당국의 이중 차별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자신의 사연

을 책으로 엮어낸 분이였다.

김 할아버지 역시 고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가이 맞아줬다. 김 할아버지는 한센병 취재를 위해 아이세엔을 찾은 한국 기자들이 처음이라면서 오후에 취재를 마치는 대로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필자와 촬영기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김 할아버지의 뜻을 물리칠 수 없어 해질녘 코디와 함께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오카야마에 있던 그 식당은 한국식 고깃집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취재하느라 힘들겠다며 일본 소고기 와규를 넉넉히 주문해서 구웠다. 반주와 찌개도 있었다. 전날 밤 한센병을 앓았던 할머니가 만들어 준 김치전을 먹은 데 이어 이번엔 한센병을 앓았던 할아버지와 음식을 나눠 먹게 됐다. 한센병을 앓았던 분과 밥상머리를 마주한 적이 없기에,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없기에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유심히 쳐다봤다.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필자와 촬영기자는 많이 먹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이력을 얘기하면서 옛 기억이 떠오르는지 가끔 상념에 잠겼는데 필자는 빨리 자리를 파하고 싶었다. 그래서 음식을 서둘러 먹었다.

김태구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오카야마의 호텔 숙소에서 짐을 풀고서 필자와 촬영

영기자는 두 번의 식사 자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촬영기자는 넌 어쩔 그렇게 김치전을 게걸스럽게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맛있느냐며 놀려댔다. 취재 당시만이 아니고 그 후로도 십수 년 동안 후배들과 밥자리나 술자리에서 간혹 그 기억을 끄집어내 생생하게 묘사하곤 했다. 그렇게 놀리는 게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얘기해도 멈추지 않았다. 한센병에 대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도, 한센병이 완치된 분들을 접촉한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던 모양이다. 하긴 그게 어디 촬영기자 선배만의 문제였을까? 그 두 번의 식사가 마뜩잖았던 건 나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사실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도 있었다. 필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당시 한센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말끔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당시 갓 돌을 넘긴 둘째 아이 때문이었다. 소록도와 일본, 중국의 한센병 치료시설을 다녀오고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과 접촉하면서 행여라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면 어쩌나, 참으로 무지한 질문을 촬영기자에게 던진 적도 있다. 한센인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손양원 목사의 얘기는 훌륭한 목사의 일화로만 들렸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었다.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참회록' 타이틀

고흥 소록대교

한센병을 다룬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참회록'을 제작한 지 14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에게 자행해 온 강제 낙태 등 각종 폭력에 대해 정부가 사과도 했고 그분들이 겪었던 차별에 대해 배상도 이뤄졌다. 한센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법정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낮고,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운치 않은 점이 하나 있다. 한센병을 앓다 완치된 분들을 이르는 '한센인'이라는 명칭이 바로 문제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한센병에 걸린 뒤 완치된 분들을 '한센인'으로 부르지 않고 '한센병을 앓았던 분'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한센인이란 명칭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병을 앓다 완치된 분들을 한센인으

로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차별 어린 시선을 내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이 앓는 전염병은 수없이 많다. 결핵, 콜레라, 코로나19 등 많은 전염병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준다. 하지만 이들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을 '결핵인' '콜레라인' '코로나19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독 한센병에 걸린 사람만 '한센인'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걸까?

결핵에 걸린 사람은 폐가 망가지지만 망가진 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콜레라나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한센병은 완치되더라도 외형이 남는다. 외형도 쉽게 눈에 띄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구별 짓기 위해 한센인

으로 부르는 걸로 보인다. 한센인이란 단어가 문둥이, 나환자 등 과거 명칭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단어다. 한센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을 한센병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굳이 따로 구별해서 불러야 할 이유가 뭔가? 한센인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낙인(烙印)이다.

한센인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을까 고민해 본 적도 있다. 자살이란 표현이 부적절해서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를 썼던 것처럼 (최근엔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가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처럼 들려서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다) 한센인 대신 다른 조어가 없을까 고민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굳이 새로운 표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씻이지 않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구별 짓기인데 한센인을 대체하는 단어를 쓴다고 한들 구별 짓는 행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센인이라는 단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서 용도 폐기하자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지난 백여 년 이어져 온 낙인을 이제 건어낼 때도 됐다. 한센병은 있지만 한센인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희망한다. 🍀

KBS순천 정길훈 기자